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넷째 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이 차갑지만 훈훈한 마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삶이 힘겹다고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작은 희망이나마 소중히 가꾸어 가는 끈질긴 믿음을 허락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소비주의의 명령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세상 도처에서 들려오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귀염나무 열매를 먹다가 제 정신이 든 탕자처럼, 우리도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길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품에 deposit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9:21

인도자

♠ 교 독 문

8. 시편19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유경순 집사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13.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함께

성경봉독

I. 갈6:1-5

인도자

II. 눅21:7-11

김정길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서로 집을 지라

김재홍 목사

II. 미혹(迷惑)되지 말라

김기석 목사

거둬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77. 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았으니 그 길을 힘써 걸으십시오. 미혹의 영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며, 지친 영혼들을 북돋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오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임원 친목회	신명기 강해(30)
주관 : 제3남선교회	기도 : 김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한성건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장혜숙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용길 곽혜자 허정윤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김준호 안길상 임창선 김성자 송양진

마음과 마음의 만남

에릭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아름다움과 전례(典禮)의 영화로움과 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의 지혜 가운데 숨어 계신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나환자와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연약한 육신 안에도 숨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 속에 숨어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어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눅 9:48).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과 무력한 자들과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짓눌린 자들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곧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상이신 것처럼, 버림받고 거부당한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와 신뢰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에릭은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와 두 손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기초한 관계와 사랑에 헌신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신뢰는 나를 일깨워 주었고, 나를 불러 세웠으며, 감히 말하건대 나를 치유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내 교만과 두려움으로 인한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공허와 이해와 애정과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촉구합니다. 만남과 축제, 나눔과 용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는 부와 고독과 과도한 활동과 여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거부합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과 마음을 열

어 놓는 애정어린 만남으로 그를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능력 있고, 교양 있고, 지적이 사람입니다. 효율성과 추리력이라는 면에서는 발달했지만, 마음은 미숙하고 쇠퇴해 있습니다. 그는 그 부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은 감상주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덧없는 감정이 나 낭만주의로 되는 것도 아니며, 성적인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만남이자 약속이고 나눔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그 만남은 세심한 마음과 용기, 다른 이에 대한 신뢰와 그의 은사에 대한 인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의 고독과 '감옥'에서 빠져 나오려면 가난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협하는 위험은,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안락과 지식과 능력 속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를 '방해'하려 옵니다. 만일 그가 그 방해를 수락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갇혀 있는 감옥의 창살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의 시선은 부유한 자의 심장을 찢러 생명에 눈뜨게 합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그리하여 부유한 자는 자신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과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껏 두려워하며 장벽을 세워 왔고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유한 자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가난한 자의 요청에 이끌릴 때, 그는 자신의 지식과 활동 능력 이면에 좀더 깊이 숨겨진 힘과 에너지를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만남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곧 온유와 양선과 오래 참음의 힘이며, 용서와 기쁨과 축하의 힘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파묻혀 있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 바니에,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 중에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에릭'은 장 바니에 신부가 세운 라르슈 공동체의 식구로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 **마/음/으/로/읽/는/글**

어떤 기도

적어도 하루에
여섯 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음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이혜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준호 곽혜자 박규석 박경선 전영순 고광송 이춘희 왕성환 강순배
한인철 조윤숙 김시영 염혜영 조문규 진정숙

월정헌금:

정진경 허광식 최윤희 김성자 서정순 이희균 김영한 백혜성 권미정
이용희

감사헌금:

김준호 곽혜자 김성수 김창원 정지은 구명자 고광송 이춘희 박범희
박미영 무명2

생일감사헌금: 박시내 이광용 형인순 구도헌금: 김철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속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나오미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또 나오미 선교회 친목회가 2월 2일(수)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 **임원친목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친교실에서 신임원 환영회를 겸한 임원 친목회가 열립니다(제3남선교회 주관)
3. **수련회** : 청년회 수련회가 오늘(30일) 오후부터 2월 1일(화)까지 양평에 있는 은명 영성수련원에서 열립니다.
4.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2월 2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4일(금) 오후 12시 30분에 실시됩니다.
5. **연합속회** : 2월 4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가버나움속 식사준비 - 예배소속
6. **별세** : 김인걸 권사의 부친이신 김한주 성도께서 지난 22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7. **신앙실천** : 새해 첫 시간에 결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집회 참석, 성경 읽기, 기도생활, 봉사...).

2월	영접위원	윤정덕 김준호 김 극 김필순 장혜숙 안경숙
	헌금위원	강인식 박창운 김용진 곽혜자 김명순 최숙화

* 헌화 : 김철수 장로 (신임원 환영)

* 식사대접: 김인걸 권사 댁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